

2026-1 TU Graz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건축학과 주범준 2021-16353

파견 대학: TU Graz

파견 기간: 2026.01.15. ~ 2026.07.15.

1. 교환학생 참가 동기 및 TU Graz 소개

교환학생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경험을 해보고,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다양한 시대의 중요한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도면으로만 접했던 건축물을 실제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유럽의 건축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교환 대학 중 TU Graz 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건축학과 수업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환학생 중 건축학과 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건축 수업을 경험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학과 학생이 유럽의 건축 교육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TU Graz 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TU Graz 는 일반적인 대학처럼 하나의 큰 캠퍼스가 형성되어 있기보다는 그라츠 시내의 세 개 지역에 학교 건물들이 나뉘어 밀집해 있는 형태입니다. 건축학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물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등의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라츠는 규모가 아주 큰 도시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대학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면 시내에서 젊은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학생 도시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출국 전에는 유럽의 치안이나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 6 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소매치기를 비롯해 특별히 위험한 경험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산책할 만한 곳도 많습니다. 특히 그라츠의 상징인 시계탑이 있는 Schlossberg 에 올라가 도시 전체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시의 크기가 적당히 작아 생활하기 편하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그라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제가 머물렀던 해의 여름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학기에 생활한다면 작은 선풍기라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출국 전 준비

2-1. 비자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출국했습니다. 비자 신청 예약을 출국 약 두 달 전에 준비했는데,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대사관 일정에 여유가 없어 별도의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TU Graz 파견이 확정되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여 대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항공권과 숙소 등 체류 일정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소나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여 증빙 서류로 제출한 뒤, 비자 발급 이후 필요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비자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의 경우 비자 신청 시 인정되는 보험 상품들을 확인한 뒤 그중 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했습니다. 요구되는 보장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기숙사

저는 OEaD 에서 운영하는 Steyrergasse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OEaD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기숙사 업체들과 비교하면 월세가

비싼 편입니다. 제가 파견되었던 학기에는 한국인 교환학생 중 OEaD 보다 STUWO 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선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은 한 플랫에 네 명이 거주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 방은 각각 따로 있고, 네 명이 주방과 화장실, 샤워실을 공유합니다. OEaD 의 장점은 입주할 때 침구와 기본적인 식기류가 제공되어 처음부터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약 2 주마다 공용공간 청소가 제공되어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에게는 위치도 큰 장점입니다. 제가 주로 수업을 들었던 건축학과 건물까지 도보 약 5 분이면 갈 수 있어 스튜디오 작업이나 수업을 위해 학교를 자주 오갈 때 매우 편리했습니다. 반면 시설 자체는 다른 비교적 새로운 기숙사들과 비교하면 다소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2-3. 항공권 및 준비물

항공권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일찍 직항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기 시작과 종료 시기에는 짐이 많기 때문에 경유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동이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 만큼 작은 밥솥은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식비가 상당히 비싸 자연스럽게 직접 밥을 해 먹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3. 학업

3-1. 건축학과 수업 구성

TU Graz 에서의 교환 생활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건축학과의 스튜디오 수업입니다. 한국에서 일정 학기 이상 건축학 수업을 이수했다면 Master 과정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수업은 한국 건축학과의 설계 스튜디오에 대응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학기 초에는 각 스튜디오 교수들이 자신의 수업 주제와 진행 방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들어본 뒤 자신이 관심 있는 스튜디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ster Studio의 경우 12 ECTS로, 학기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중심 수업입니다.

특히 제가 TU Graz의 스튜디오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기 초에 진행되는 답사 주간입니다. 대략 수업 3주차 무렵 스튜디오별로 답사를 진행하며, 수업에 따라 오스트리아 밖의 다른 국가로 답사를 가기도 합니다. 제가 수강한 스튜디오에서는 보스니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보스니아는 EU에 속하지 않아 개인 여행으로는 상대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보는 것뿐 아니라 며칠간 같은 스튜디오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며 수업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와 건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스튜디오를 선택할지 고민한다면 프로젝트 주제뿐 아니라 답사 장소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TU Graz의 건축 수업을 들으며 인상적이었던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건축'에만 집중하지 않는 수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학과에서 개설되는 강의이지만 예술이나 사회,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며 건축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강의형 수업 보다는 참여하고 결과물들을 만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모든 학생에게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건축 교육과는 다른 관점으로 공간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이라면 여러 개의 작은 과목만 듣기보다는 가능하면 하나의 스튜디오 수업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구성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젝트 자체뿐 아니라 답사와 크리틱,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까지 포함하여 유럽의 건축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 Elective Course

스튜디오 외에도 다양한 Elective Course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강의 목록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들을 확인한 뒤 관심 있는 수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World Building 과 Information Visualization 을 수강했습니다.

World Building 은 건축보다는 사회적 현상과 사람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관찰하고 분석한 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공간과 관계를 맺는지를 일종의 행동 지침이자 수행의 대본인 'score'의 형태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건축 수업과 상당히 다르게 느껴졌지만, 건축을 완성된 물리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와 관계를 조직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Information Visualization 은 Unreal Engine 을 활용하여 영상 결과물을 제작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실시간 3D 엔진을 이용해 공간과 정보를 시각화하고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 자체뿐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익히고 건축적 정보를 다른 매체로 전달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강신청 과정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TU Graz 합격 이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이트와 필요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제공하기 때문에 메일과 안내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4. 그라츠에서의 생활

4-1. 교통

저는 오스트리아 전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limaTicket 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그라츠에서 생활하는 교환학생에게는 그라츠가 속한 슈타이어마르크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Top-Ticket 도 많이 추천하지만, 저는 오스트리아 내에서 여행을 많이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KlimaTicket 을 선택했습니다.

KlimaTicket 은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도 가능했습니다. Top-Ticket 과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내 여행을 자주 할 생각이라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엔나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갈 정도로 장거리 이동이 많다면 KlimaTicket 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구매는 ÖBB 창구에서 진행했습니다. 귀국할 때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거주등록을 해지했다는 서류와 실물 티켓을 함께 ÖBB 창구로 가져가야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바로 출국하는 경우 일정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지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4-2. 통신 및 은행

통신은 HoT 유심을 사용했습니다. HoT 는 오스트리아의 HOFER 매장에서 SIM 카드를 구매할 수 있어 별도의 통신사 매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 가까운 HOFER 에서 유심을 구매해 사용하면 됩니다.

결제에는 주로 한국에서 만든 트래블월렛 카드를 사용했으며,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지 않고 출국했기 때문에 국제학생증 발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계좌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은행은 Erste Bank 를 이용했습니다. 현지 계좌를 개설했다면 귀국 전에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정리하고 해지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3. 식생활과 물가

오스트리아의 물가는 유럽 안에서도 저렴한 편은 아니며, 특히 외식비가 상당히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식보다는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앞서 언급한 작은 밥솥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는 Mensa 라고 불리는 학생식당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음식이 특별히 맛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친구들과 경험 삼아 한 번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활에서는 학생식당보다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식비 측면에서도, 입맛 측면에서도 잘 맞았습니다.

5. 교환학생 교류 및 여가 생활

TU Graz 에서 다른 교환학생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SN 의 Buddy 프로그램입니다. ESN 사이트에서 현지 학생 버디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빠르게 차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되면 사이트에 가입한 뒤 틈틈이 빈자리가 생겼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ESN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내 여행을 하면서 FlixBus 나 Ryanair 등을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면 관련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계획에 따라 구매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버디 프로그램 외에도 ESN 에서 학기 중 다양한 행사를 주최합니다. 매주 한 번 정도 ESN Pub 행사가 열려 다른 교환학생이나 현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었고, 학기 초에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라츠에서 만난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만난 것은 아니었고, 학기 초 대면으로 진행된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 친해졌습니다.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행한 경험 역시 제 교환학생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는 독일어 집중 수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수업 역시 다른 교환학생들과 미리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변에는 해당 기간에 독일어 수업을 듣기보다 정규 학기가 시작하기 전 유럽 여행을 다닌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교환학생 생활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마치며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생각했던 만큼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거나, 다른 교환학생들에 비해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주변의 다른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비교하면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닌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꼭 많은 나라를 여행하거나 수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야만 교환학생을 잘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선 나라에서 한 학기 동안 직접 생활해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충분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유럽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축을 공부하고, 직접 보고 싶었던 공간과 건축물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하기보다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과정 자체를 충분히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 담지 못한 내용이나 TU Graz 교환학생 준비 및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아는 내용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mail: beomjun27@snu.ac.kr